

아 딸을 프랑스에 보낼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네. 그러면서 자기 친척 중 그 배의 승객으로 있는 한 부인에게 비르지니를 부탁할 것이라고도 했지. 또 향후 몇 년 간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라도 그 막대한 재산을 버려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도 말했네. 그는 떠나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어.

“부인네 이모님께서는 2년 이상 버티시지 못할 겁니다. 그분의 친지분들께서 알려주셨지요. 잘 생각해보세요. 행운이 매일같이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. 곰곰이 생각해보셔야 합니다.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제 의견에 동의할 겁니다.”

부인은 대답하길, “이제 이 세상에서 딸의 행복 말고는 다른 행복은 바라지 않을 터이니, 프랑스로 떠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 아이의 판단에 맡기겠노라고” 했네.

라 투르 부인은 비르지니와 폴을 잠시 떨어트려놓을 기회가 생겨 안타까워하기보다, 그 시간이 언젠가 서로에게 행복을 마련해주리라고 보았지. 그래서 딸을 따로 데리고 가서 말했어.

“딸아, 우리 집 하인들은 늙었단다. 폴은 너무 어리고, 마르그리트는 나이가 들었어. 나는 이미 병약한 몸이란다. 만약 내가 죽기라도 하면, 이 산골오지 한가운데서 재산도 없이 너는 어떻게 되겠니? 그러면 너는 의지가 하나 없이 홀로 남겨질 테고, 이 땅에서 먹고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된